

「언론중재」 구독 실태조사

조사연구팀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하는 정기구독자들은 어떤 코너를 가장 선호하며 또 흥미있게 구독할까? 독자들은 회지 「언론중재」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회지에 실린 글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 회지 「언론중재」가 양질의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

우리 조사연구팀은 회지 「언론중재」 100호 특집 발행을 맞아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회지 「언론중재」 정기구독자를 대상으로 구독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기 구독자 총 1000여 명 중 도서관, 공공단체 등의 기관구독자를 제외한 정기 개인 구독자에 한정하여 회지의 선호코너, 장·단점, 개선점 등을 묻는 23개의 문항이 실린 설문지를 우송했고, 이 가운데 152부의 설문지가 회송되어 이를 바탕으로 구독자 구독실태를 분석했다. 편집자 주

국내언론관계 판결 코너 선호도 가장 높아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하는 독자는 ‘국내언론관계판결’ 코너를 가장 흥미있게 구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지 「언론중재」의 각 코너 중 선호하는 코너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64명의 독자가 ‘국내언론관계판결’ 코너를 가장 즐겨 읽는다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논문’ 코너를 즐겨 읽는다고 대답한 독자는 38명이었다. 이어 ‘특집’ 32명, ‘외국언론관계판결’ 26명, ‘기고논문’ 24명, ‘언론조정신청사례’ 17명, ‘해외동향’ 16명, ‘언론보도와 인격권’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원회 소식’을 즐겨 읽는다고 대답한 독자는 3명, 영국, 호주 등 해외의 신문평의회에서 내린 주요 결정 등을 소개하는 ‘해외신문평의회 사례’ 코너와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주요 상담 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지상중계’ 코너는 각 2명만이

선호한다고 대답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선호하는 코너

코너	빈도수(중복응답)
국내언론관계판결	64
연구논문	38
특집	32
외국언론관계판결	26
기고논문	24
언론조정신청사례	17
해외동향	16
언론보도와 인격권	11
언론법제관련문헌	10
위원칼럼	8
언론과 법	6
위원회소식	3
해외신문평의회 사례, 온라인지상중계	각 2
계	259

한편 정기구독자의 종사 직무별 선호도를 분석해

보면 먼저 교수, 강사 등 학계에 몸담고 있는 독자들은 회지 「언론중재」에 실리는 코너 가운데 ‘국내언론관계판결’ 코너를 가장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포함 총 100건의 응답사례 중 ‘국내언론관계판결’을 선호한다고 답한 독자가 22명, ‘연구논문’이라고 답한 독자가 20명, ‘특집’ 15명, ‘외국언론관계판결’ 11명, ‘기고논문’ 9명, ‘해외동향’ 6명, 그리고 ‘언론조정신청사례’, ‘언론보도와 인격권’, ‘언론법제관련 문헌’ 각 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현직 언론인들 역시 ‘국내언론관계판결’ 코너를 가장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53명 중 12명). 그러나 학계 독자들과는 달리 ‘해외동향’ 코너에 관심이 많다는 독자가 8명, ‘특집’ 7명, ‘기고논문’ 6명, ‘연구논문’, ‘언론조정신청사례’ 각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계에 몸담은 독자들이 ‘연구논문’과 ‘특집’에 큰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언론계 독자들은 ‘연구논문’보다는 ‘해외언론동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대답한 점이 다소 흥미롭다.

법조계 독자들 역시 ‘국내언론관계판결’ 코너를 가장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27명의 독자가 ‘국내언론관계판결’을 가장 즐겨본다고 대답했으며 뒤이어 ‘연구논문’ 12명, ‘외국언론관계판결’ 및 ‘기고논문’ 각 9명, ‘특집’ 7명, ‘언론보도와 인격권’ 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독자들의 경우 학계의 독자와 비슷한 선호 성향을 보이면서도, 학계 독자나 언론계 독자와는 달리 ‘언론보도와 인격권’을 선호한다고 답한 독자가 다소 많은 것이 눈에 띈다.

한편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독자의 경우 ‘언론조정신청사례’ 코너를 즐겨 본다는 독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시민단체의 관심이 매우 큼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구독자들이 해당 코너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이유는 업무활동과 연관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

장 많았고(47.4%, 72명)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독자는 31.0%인 47명, 주제의 시의성이 높아 관심 있게 본다고 대답한 독자가 22명, 다른 매체 등에서 구하지 못하는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독자가 11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직종별 선호도

코너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계
국내언론관계판결	22	12	27	-	61
연구논문	20	4	12	1	37
특집	15	7	7	-	29
외국언론관계판결	11	3	9	-	23
기고논문	9	6	9	2	26
언론조정신청사례	4	4	4	3	15
해외동향	6	8	1	-	15
언론보도와 인격권	4	1	5	-	10
언론법제관련문헌	4	3	2	1	10
위원칼럼	-	1	2	2	5
언론과 법	3	2	1	-	6
위원회소식	2	-	1	-	3
온라인지상중계	-	1	-	1	2
해외신문평의회사례	-	1	-	-	1
계	100	53	80	10	243

‘위원회 소식’, ‘위원칼럼’, ‘온라인지상중계’ 코너에 대한 선호는 다소 떨어져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하는 독자들은 ‘위원회 소식’ 및 ‘위원칼럼’, ‘온라인지상중계’ 코너에 별 흥미를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지 「언론중재」 코너 중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코너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57명의 독자가 ‘위원회소식’ 코너라고 대답했으며, ‘위원칼럼’이라고 대답한 독자가 46명, ‘온라인지상중계’ 41명, ‘해외신문평의회사례’ 22명, ‘언론법제관련문헌’ 18

명, '해외동향'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코너인 '특집'이나 '국내언론관계판결', '연구논문', '기고논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코너는 빈도수가 낮게 나왔다.

〈표 3〉 선호하지 않는 코너

코너	사례수(중복응답)
위원회소식	57
위원칼럼	46
온라인지상중계	41
해외신문평의회사례	22
언론법제관련문헌	18
해외동향	16
언론과법	9
기고논문, 언론조정신청사례, 언론보도와 인격권	각 6
외국언론관계판결, 연구논문	각 5
국내언론관계판결	2
특 집	1
계	240

한편 언론중재 회지를 구독하는 독자 대부분이 직종에 상관없이 '위원회소식', '위원칼럼', '온라인지상중계' 코너를 비중 있게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계의 독자 중 25명이 관심을 가지고 읽지 않는 코너로 '위원회소식'을 꼽았으며 '위원칼럼' 23명, '온라인지상중계' 19명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언론계의 독자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위원칼럼' 코너 8명, '위원회소식' 및 '온라인지상중계' 코너 각 7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독자들 역시 '위원회소식'을 가장 무관심한 코너로 꼽았으며(19명), '위원칼럼'과 '해외신문평의회 사례' 각 11명, 그리고 '온라인지상중계' 9명 순으로 관심있게 읽지 않는 코너를 꼽았다.

회지 「언론중재」의 일부 코너가 독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56.6%인 86명이 업무활동과 관계가 없어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답했고 32명이 매회 주제내용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와 다른 잡지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각각 9명이었다.

직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무관심 코너는 향후 다른 코너로 대체하거나 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과 만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직종별 선호하지 않는 코너

코너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계
위원회소식	25	7	19	2	53
위원칼럼	23	8	11	1	43
온라인지상중계	19	7	9	1	36
해외신문평의회사례	5	3	11	1	20
언론법제관련문헌	6	5	5	2	18
해외동향	1	5	7	2	15
언론과법	5	2	2		9
기고논문	3	1	2		6
언론보도와 인격권	3	1	1		5
언론조정신청사례	2	2	1		5
연구논문	2	2	1		5
외국언론관계판결		4			4
국내언론관계판결		1	1		2
특 집	1				1
계	95	48	70	9	222

가장 기억에 남는 특집은 '시민 저널리즘, 과제와 전망(2006년 여름호)', 향후 인터넷상의 인격권 보호 관련 내용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한 독자들은 대부분 최근에 제공된 특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인상깊게 읽은 특집 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5명 중 16명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취재 및 기사를 생산하고 이를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식인 시민 저널리즘을 소개하고 이를 법적, 윤리적 쟁점 등으로 세분화해 심도있게 분석한 2006년 여름호 특집 '시민 저널리즘, 과제와 전망'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고 15명은 언론인의 비윤리적 취재보도의 유형을 살피고 취재윤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 2006년 봄호 특집 '취재윤리와 진실보도'가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다. 14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가 조정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본 2005년 겨울호 특집 '포털 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을 기억에 남는 특집으로 꼽았고 이밖에도 7명이 2004년 봄호 특집 '공익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를, 5명이 2005년 봄, 여름 두 번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를 기억에 남는 특집으로 꼽았으며 2003년 여름호 특집 '인터넷 언론의 법적문제와 과제', 2003년 겨울호 특집 '언론사건 비판과 명예훼손', 2002년 여름호 특집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을 꼽은 독자도 각각 2명씩이었다.

〈표 5〉 기억에 남는 특집

특집제목	사례수
시민저널리즘, 과제와 전망(2006. 여름호)	16
취재윤리와 진실보도(2006. 봄호)	15
포털 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2005. 겨울호)	14
공익관련보도의 법적 제문제(2004. 봄호)	7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I, II(2005. 봄, 여름호)	5
인터넷 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2
언론사건 비판과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2
기 타	12
계	75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인격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71명의 독자가 이에 대한 특집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개똥녀 사건', '된장녀 사건' 등으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격권 보호가 사회문제화 된 것을 반영한 듯 16명의 독자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 및 인권 보호를 주제로 특집을 다뤄줄 것을 희망했으며 11명의 독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보도의 한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판결동향 등을 다뤄줄 것을 희망했다.

이밖에도 초상권 침해를 포괄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 독자가 5명, 저작권 침해 4명, 취재원 보호의 측면에 대한 특집을 다뤄줄 것을 요청한 독자도 3명이나 되었다. 몰래카메라의 법적 제문제 및 몰래카메라와 알권리,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과 인격권, 뉴미디어와 액세스권 등 최근 모 방송사 기자의 속칭 'X파일' 관련 법원 무죄판결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몰래카메라와 인격권을 특집으로 다룰 것을 요청한 독자도 5명이나 되었다.

또한 각국의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해 인격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독자 및 인격권 침해의 사례분석과 대책을 특집으로 제안한 독자 그리고 언론의 횡포와 왜곡보도 및 편파보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한 독자 역시 각각 4명이었다.

이밖에도 기사화되지 않는다는 사전 보도자료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 시민단체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기사로 시민단체의 인격권을 훼손한 보도를 다루자는 의견, 국익 진실 보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다루자는 의견, 외국인 체류자들의 인격보호를 위한 특집을 다루자는 의견, 공적인 물의 인격권 보호의 한계를 다루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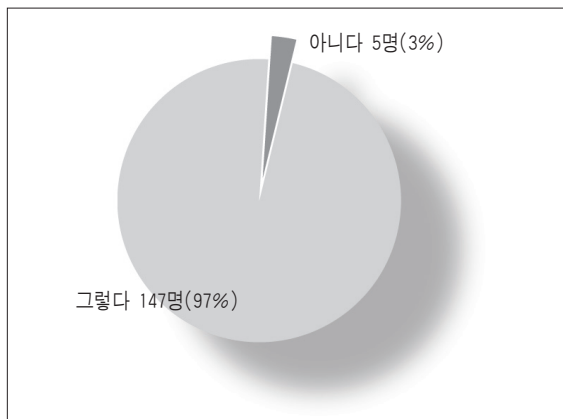
〈표 6〉 게재 희망 인격권 관련 내용

내 용	사례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법적책임 및 인권보호	16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11
초상권 침해 관련	5
몰래카메라 사용 관련	5
저작권 침해 관련	4
각국의 인격권 보호 경향 및 현황	4
인격권 사례 분석 및 대책	4
언론의 왜곡보도 및 편파보도	4
취재원 보호 관련	3
기 타	15
계	71

전문지로서 「언론중재」, 더욱 다양한 내용 실어야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하는 독자의 97%가 회지 「언론중재」를 전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응답자 152명 가운데 147명이 전문지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5명만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전문지가 아니라고 대답한 독자 중 3명은 특집주제 및 '기고논문'의 필자가 지나치게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림 1〉 회지의 전문성 여부



회지 「언론중재」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독자들은 회

지 「언론중재」가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유익한 자료를 다수 수록하고 있으며 중재제도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풍부한 실무사례 및 판례 등을 싣고 있는, 전문성을 확보한 유일한 언론 및 법을 다루는 종합 잡지라고 대답했다.

125명의 독자가 이 질문에 대답했는데 이 가운데 회지 「언론중재」가 언론중재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익한 잡지라고 대답한 독자가 38명이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도 및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언론관계판결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해설을 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독자가 26명, 법과 언론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견해가 반영된 질 높은 전문적인 논문 수록 및 전문성이 장점이라고 대답한 독자가 25명이었다.

또한 시의성 있는 국내언론판결정보 및 해외언론판결정보와 특집 수록이 장점이라고 대답한 독자 21명, 언론과 법을 동시에 다루며 언론과 법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유일한 전문잡지라는 의견을 낸 독자가 14명이었다. 이밖에도 저널리즘 윤리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언론피해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언론에 한정된 자료를 게재함으로써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표 7〉 회지 「언론중재」의 장점

구 분	사례수
언론중재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제공	38
언론관계판결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설	26
전문성 띤 논문 수록	25
시의성있는 국내외 언론관계판결 사례	21
언론과 법을 함께 다루는 전문지	14
기타	1
계	125

하지만 회지 「언론중재」가 더욱 전문적이고 질 높은 잡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집방법을 개선하고 틀에 박힌 주제 및 내용을 과감히 탈피,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필자를 발굴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 개선점으로 제시되었다.

회지 「언론중재」의 단점 및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20명의 독자가 주제의 중복을 피하고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그림 삽입을 시도하며, 전문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세심한 교열작업을 거치며, 원고분량을 좀 더 늘리는 등 편집의 묘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필자를 과감히 기용하여 틀에 박힌 내용을 탈피하고 이들 신진 필자들의 참신한 글을 연구논문에게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한 독자도 13명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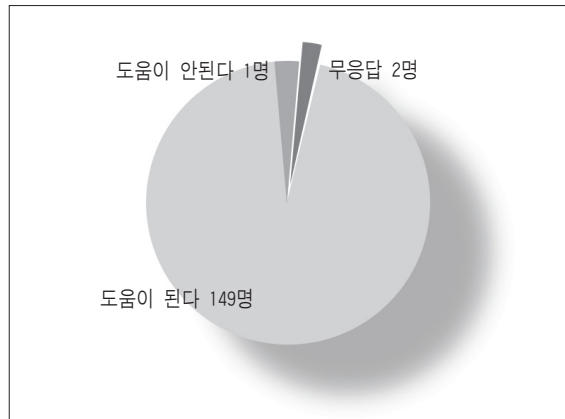
또한 언론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언론인의 직업 윤리적 측면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의견을 제시한 독자가 9명, 현재 회지 「언론중재」의 성격이 전문지도 정보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이므로 학술지 성격의 전문지로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독자도 8명이나 되었다. 이밖에 소수의견으로 지방법원의 언론관계 판결을 게재할 것,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것, 월간지 형태로 발행할 것, 중재위원들이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여 그 결과물을 회지에 적극 반영할 것, 언론보도의 피해자 입장을 좀 더 많이 다룰 것, 분쟁해결의 기술을 소개할 것, 비현실적인 논문은 과감히 제한할 것, 배포범

위를 확대하여 일반인도 구독할 수 있게 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술논문 및 강의자료 등에 꾸준히 인용되는 유용한 잡지 회지 「언론중재」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하는 독자들은 회지 「언론중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회지 「언론중재」를 통해 언론판결동향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지 「언론중재」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학술논문, 평론 및 강의자료 등에 유용하게 인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회지의 유익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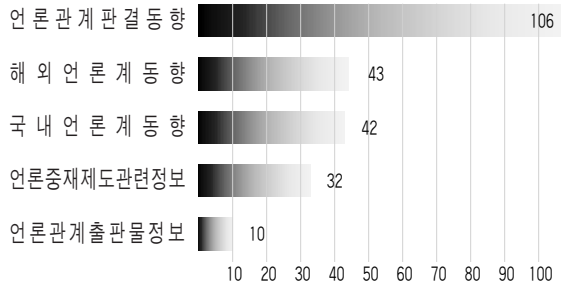


회지 「언론중재」가 도움이 되는지의 질문에는 1명을 제외한 149명의 독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06명(중복응답)이 회지 「언론중재」를 통해서 언론관계 판결동향 및 이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얻는다고 대답했으며 해외언론계 동향, 국내언론계동향 정보 습득이 각 43명, 42명 순이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 및 정보획득이 32명, 언론관계 출판물 정보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표 8〉 개선 점

구 분	사례수
편집개선	20
필자 발굴	13
언론 일선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9
학술지 성격으로 변신	8
기 타	41
계	91

〈그림 3〉 회지를 통해서 얻는 정보



회지 「언론중재」가 좀 더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독자들은 언론관계 판결동향에 대한 정보를 더욱 보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64명), 언론계 주요 쟁점을 전반적으로 다뤄줄 것(45명), 외국언론법제관련 정보를 다뤄줄 것(42명),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줄 것(23명) 순으로 대답했다.

〈표 9〉 보강정보

용 도	사례수(중복응답)
언론관계 판결동향 정보	64
언론계의 현안 및 전반적인 쟁점	45
외국언론법제관련 정보	42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관련 정보	23
언론법제 정보	15
계	189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한 독자 가운데 회지 「언론중재」에 실린 논문 등을 학술·학위논문이나 단행본, 잡지, 강의용 교재 및 칼럼, 평론 등에 인용한 경험이 있는 독자는 모두 71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학술 논문에 게재한 독자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론이나 기사 등에 인용한 독자가 12명, 강의용 교재로 사용한 독자 7명, 연구보고서

5명 순이었으며 학위논문에 인용한 독자도 4명이었다.

〈표 10〉 인용용도

용 도	사례수
학술논문	27
평론, 칼럼 등 기사	12
강의용 교재	7
연구보고서	5
학위논문	4
단행본	2
기 타	2
계	59

한편 정기구독자 가운데 46명의 독자가 회지 「언론중재」에 한번 이상 기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회 기고한 독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 ~ 3회 기고한 독자 19명, 4회 이상 기고한 독자 6명 순이었다. 회지 「언론중재」에 한 번 이상 기고를 한 독자들에게 원고 작성 시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결과, 29명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대답해 부족하다고 대답한 13명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들 가운데 회지 「언론중재」에 기고할 기회가 생길 경우 어떠한 내용을 기고하겠느냐는 질문에 독자들 가운데 약 36%(대답하지 않은 20명 포함)인 54명의 독자가 언론관계판결동향 및 법제에 관한 글을 기고하겠다고 대답했으며 뒤를 이어 취재윤리 등 언론윤리 관련 내용을 기고하겠다는 독자가 41명, 미디어 일반에 관한 내용을 쓰겠다는 독자가 29명이었으며 이외에도 인격권, 취재현장의 경험담, 일본언론동향, 온라인 저널리즘, 언론관련단상 등을 게재하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며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기고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표 11〉 희망기고분야

분 야	사례수
언론관계판결동향 및 법제	54
취재윤리 등 언론윤리 관련	41
미디어일반	29
기 타	8
계	132

회지 「언론중재」에 맞다면 중독성이 생긴다?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하는 독자 가운데 구독기간이 1~5년 미만인 독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69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년 이상 꾸준히 회지 「언론중재」를 구독하는 장기 구독자도 57명이나 됐으며 특히 이중 20명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회지 「언론중재」를 받아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12〉 구독기간

구독기간	사례수
1 ~ 5년	69
5년 이상 ~ 10년 미만	37
1년 미만	26
10년 이상	20
계	152

회지 「언론중재」의 발행주기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처럼 계간지의 성격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독자가 84%인 128명이었으며 적당하지 않다고 대답한 독자는 23명이었다. 발행주기를 현재의 연 4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23명 가운데 월간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독자가 13명이었으며 격월간으로 발간해야 한다는 독자는 7명이었다.

표와 그림을 많이 삽입하고 속지 컬러를 다양화해야

회지 「언론중재」의 디자인에 대해 많은 독자들은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편집에서 벗어날 것과 다채로운 디자인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회지 「언론중재」 디자인 상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고정된 기본 틀 거리의 개선을 지적한 독자가 모두 37명이었으며 단조로운 속지 컬러의 개선을 요구한 독자는 32명, 난해한 표지 디자인을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한 독자가 21명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디자인이 맘에 들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독자도 53명이나 되었다.

〈표 13〉 디자인 개선점

구 분	사례수
현재 디자인으로도 충분	53
고정된 기본 틀거리 개선	37
단조로운 속지 컬러 개선	32
난해한 표지 디자인 개선	21
기 타	9
계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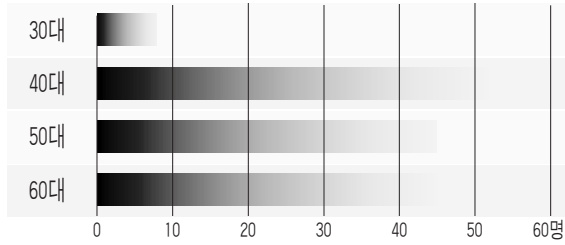
한편 '언론중재' 라는 제호에 대해 대다수의 독자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나 변경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독자도 23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는 '언론중재'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관지처럼 느껴진다, 고리타분하고 관적인 냄새가 난다, 실제로는 조정업무가 주 업무인데 중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으며 그 대안으로 다양한 제호를 제안했는데 '재미있는 언론중재', '언론문화', '자유언론' 을 제안한 독자가 각 2명이었으며 이밖에 '언론과 법제', '언론동향', '바른언론', '언론법제', '언론법과 판결', '언론과 중재', '언론윤리와 법', '미디어윤리저널' 등 다양한 제호가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모두 152명의 독자가 참여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43명, 여성이 9명으로 남성이 절대다수

를 차지했다. 이들 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53명, 60대 이상이 47명, 50대가 45명이었으며 30대도 7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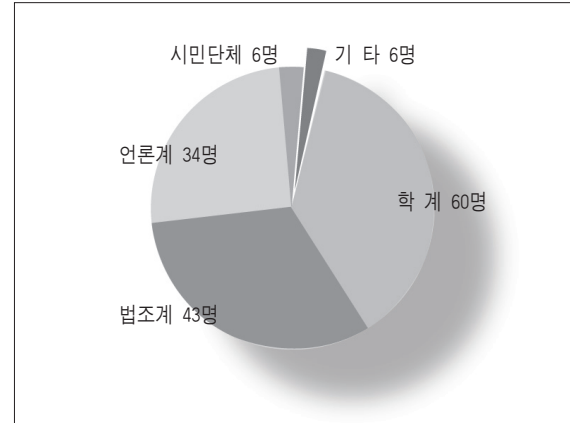
3명 등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

〈그림 4〉 독자 연령대



이중 학계에 몸담고 있는 독자가 60명, 법조계가 43명, 언론계가 34명이었으며 시민단체 6명, 정부기관

〈그림 5〉 독자 연령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의 회지 「언론중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사연구팀 일동 -